



##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권 장기 대출 영향

이정환 선임연구원

- 12월 20일 스페인은 ECB의 장기 대출 결정<sup>1)</sup>에 힘입어 신규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하락함.
  - 스페인은 ECB의 장기 대출 결정에 힘입어 12월 20일 3~6개월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함.
    - 국채 발행 규모는 56억 유로로, 당초 목표치인 45억 유로를 크게 상회함.
    - 3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1.74%로, 11월 발행 당시 5.11% 보다 대폭 하락하였고, 6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11월 발행 당시 5.23%에서 2.44%로 하락함.
  - ECB의 장기 대출 만기 3년 연장으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하락함.
    - 11월 초 7.48%까지 올랐던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2월 20일 6.57%로 하락하였고 2년 만기 국채금리는 7%대에서 5% 초반대로 하락함.
  - 로이터는 12월22일 이탈리아 은행들은 1,160억 유로를 대출 받았고, 스페인 은행들은 거의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소 500억에서 최대 1,000억 유로 규모로 자금을 빌려간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ECB 발표 이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27bp 상승하였고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bp 상승함.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ECB 대출로 은행의 국채 매입을 금지할 것이란 예상이 원인으로 지적됨.
    - EBA는 은행들이 ECB의 대출 자금으로 부실 국채를 매입할 경우 또 다른 부실자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규모가 예상보다 많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1) ECB는 12월 21일 자금난에 몰려 있는 유럽의 523개 은행에 대한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4,890억 유로로 배정하고 12월 22일부터 대출 입찰을 시작함.

- 대출금리가 1.0%로 낮아졌고 대출만기가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ECB는 2008~09년 1차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욱 적극적인 유동성 팽창을 취한 것임.
- ECB의 장기 대출은 유럽 주요국이 재정위기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의 단기 국채 시장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위기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유로존 주요 국가 신용등급이 ‘부정적 관찰대상’에 놓여 있어 등급 강등이 언제 발표될지 알 수 없는데다, 유럽은행은 2012년 6월까지 자기자본 9% 비율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
- 만기 차환 부채로 인해 2012년 유동성 부족 상황이 심각할 수 있음.
  - 유럽 은행들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차환해야 하는 부채가 7,000억 유로에 달함.
  - 이중 2012년 1/4분기에 만기가 찾아오는 액수는 2,000억 유로임.
- ECB의 실질적인 신규 대출 규모는 4,890억 유로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 대출액은 기존 대출액에 직접적으로 더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로이터는 은행들이 1년 만기 기존 대출액 중 457억 유로를 장기로 전환하고 3개월 만기 기존 대출액 중 1,100억 유로를 장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추정함.
  -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대출 규모는 2,0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분석함.

(Financial Times 12/22, Wall Street Journal 12/21)